

#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 학교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



**임 창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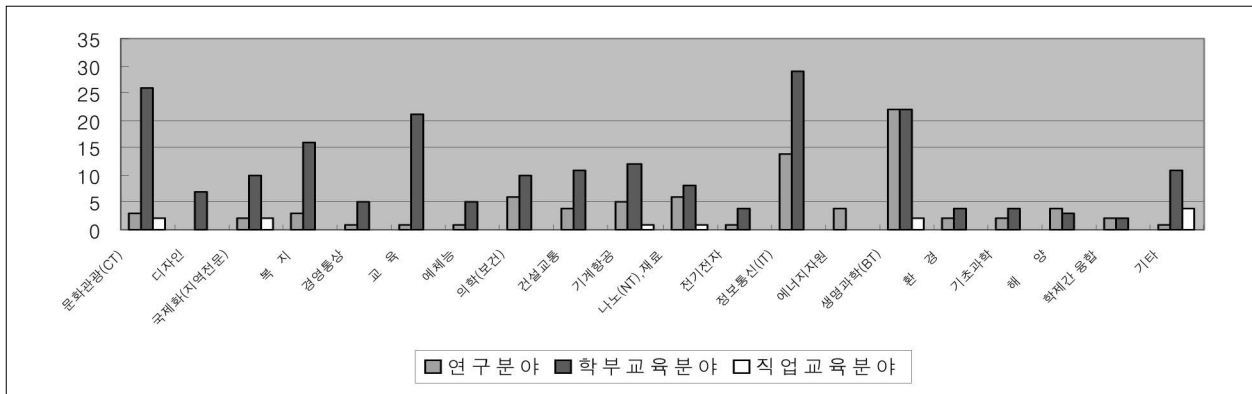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 개혁팀 팀장  
cbyim@moe.go.kr

### 1. 대학 특성화의 필요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에 따라 사람과 지식의 산실인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기업의 기술, 지식에 대한 국가 경쟁력 의존도가 확대됨에 따라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을 창출·관리하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평가, 외국에서의 대학평가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입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수도권 대학으로의 우수인재 집중, 선진국의 고등교육시장 개방 압력

등은 우리 대학들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교육기회의 대폭 확대로 산업사회에 필요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배출해 왔고 이것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이 질적인 수준까지 담보하지 못하면서 오늘날의 대학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은 대학이 획일적인 외형확대에 치중하여 대학간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과 설치에 치중하여 왔으며, 대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제한된 대학내 자원의 선택과 집중보다는 학과간 균등 배분주의로 대학의 브랜드를 실현시키지



▲ 표 1. 대학별 특성화 현황 조사 결과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6년 3월~4월에 총 223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특성화 현황조사 실시한 바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생명공학(BT), 정보통신(IT), 나노(NT), 문화관광(CT) 등을 많은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는 등 국가전략분야에 특성화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특정분야로의 쏠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부재정지원만을 받기 위해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문발전 및 대학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문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선정하여 육성하려는 대학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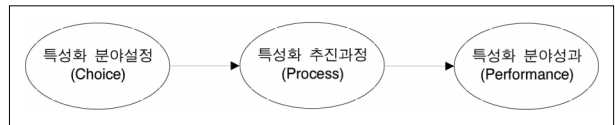
정부에서도 70년대 이후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학수와 대학정원의 폭발적인 확대에 부응하는 재정투자를 하지 못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전체 대학재정의 22.7%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중 국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등의 재정지원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사업단위의 지원은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3개 부처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90%에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 및 공유 체계가 부족하여 강점분야로 정부자원의 집중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5년 11월에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방안은 획일적인 서열화된 일류대학 지향에서 특성화된 유일(唯一)한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의 특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정부가 향후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강점분야로의 자원배분, 범정부 차원의 공조 추진,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 방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학에 투입되는 정부자원을 범정부적 연계·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연계·조정을 성과관리시스

템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2. 대학 특성화의 개념 및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특성화를 특성화 분야 설정(decision), 특성화 추진과정(process), 특성화 성과(performance)의 세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학이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문영역·기능유형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②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및 학내의 자원을 집중 혹은 재 배분함으로써, ③대학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1. 대학 특성화 추진 과정

다수의 대학들이 생존전략으로서의 특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 나름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점분야로의 특성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분야별로 특성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도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학교의 발전전략으로서 설정·운영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특성화 추진의 첫 단계인 특성화 분야 설정과 관련하여 대학내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몇 개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학내 자원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특성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과간의 경쟁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학과가 특성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은 그 조직의 특성상 스스로의 합의에 의한 개혁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대학이 설정한 특성화 방향을 판단하여 대학 특성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체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특성화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의 연계·조정을 위해 2006년부터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대학재정지원 관련부처 및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존 특성화 정책과 연구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특성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촉진기제를 만드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학별 비교우위 분야·기능으로의 특성화분야선정을 촉진하고 이를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 및 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학의 특성화 역량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학 특성화 지표’를 부처 공동으로 개발하고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별 특성화 분야 및 기능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부처 공동으로 개발한 특성화지표를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개별부처·개별사업별로 평가지표가 상이하였고, 당해 사업고유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지원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대학 특성화 지표’에 평가결과를 사업고유지표와 결합하여 재정지원사업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우수성과 함께 대학이 그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부처간 재정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대학특성화지표		사업고유지표
핵심지표	선택지표	
핵심으로 표기된 정량중심의 지표 (10개)	핵심지표 이외의 지표 (12개)	개별 사업 시행 주체가 결정하는 지표(사업의 고유성·독자성 고려하여 결정)

▲ 표 2. 대학 특성화 지표의 구성

대학 특성화 평가지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성화 추진과정에 맞추어 ‘특성화 분야설정’, ‘특성화 추진과정’, ‘특성화 분야성과’의 3단계별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가 혼합되어 있다. 특성화 평가지표는 또한 평가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핵심지표(10개)와 부처별·사업별로 취사선택이 가능한 선택지표(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처에 따라서 재정지업사업 설계시 평가지표를 사업고유지표 이외에 핵심지표(10개), 부처에서 선택한 선택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고유성·독자성을 유지와 함께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된 특성화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을 모델로 하고 있어 특성화 평가지표를 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설립주체, 규모 등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평가가 되어야 특성화평가 지표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성화 평가지표를 2007년에 곧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시범적용을 통해서 적용대상사업, 적용범위, 설립주체·규모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도에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 등 6개 부처의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적용에 대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2007S년 말에는 특성화 지표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반영비율 등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출하고,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준거에 따라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시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시 기	반영방법	대상 사업(안)
'07년 상반기	신규선정	교육부 수도권특성화사업, 산자부 지역혁신센터(RIC), 중기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잠정)
'07년 하반기	중간평가	과기부 우수연구센터, 정통부 IT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노동부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지원

▲ 표 4. 시범적용 사업

단계별 영역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비고
I. 특성화 분야 설정	1. 특성화 분야 선정 과정	1.1 특성화 분야 선정시 학내외 의견수렴 여부	
	2. 특성화 추진 계획	2.1 특성화 분야와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 여부 2.2 특성화 분야 육성계획의 체계성	핵심
II. 특성화 추진과정	1.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	1.1 대학 운영체제 및 학사제도 개선 정도 1.2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및 학생 정원 감축 1.3 대학전체의 교원 확보현황	핵심 핵심
	2.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여건 개선	2.1 특성화 분야의 교수 1인당 학생수 2.2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선 노력 2.3 특성화 분야의 전임교수 1인당 교내 연구비 2.4 특성화 분야의 교수 업적평가제도 개선	핵심
	3.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도	3.1 특성화 분야 교수 확보율 3.2 특성화 분야에 대한 예산 3.3 특성화 분야에 대한 학생 1인당 장학금 3.4 특성화 분야에 대한 학생정원 증감여부	핵심 핵심
III. 특성화 분야성과	1. 특성화 분야의 자체성과	1.1 특성화 분야 총원율 및 취업률 1.1.1 특성화 분야 총원율 1.1.2 특성화 분야 취업률 1.1.3 특성화 분야의 전공 취업률 1.2 특성화 분야 연구 실적 1.2.1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적 1.2.2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 1.3 특성화 분야 산학 협력 실적	핵심 핵심 핵심
	2. 특성화 분야의 대외 실적	2.1 재정지원 수주 및 외부 대응자금 유치 실적 2.2 지역사회(산업)에 대한 기여도	핵심

▲ 표 3. 대학특성화지표(안)

시범적용과 향후 특성화지표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각계인사로 '대학특성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 사업에 대한 대학별 특성화평가 시범적용 하게 된다. 이를 통해 '08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특성화 지표가 적용되면 정부재정지원과 대학의 특성화가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 그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시장기제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성화지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특성화 지도는 대학의 분야별·기능별 특성화 추진 현황을 전국적·체계적 차원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성화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웹(Web)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및 학과에 관한 특성화 정보를 바탕으로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

고, 기업들은 기술개발, 산학협력 등에 있어 대학의 특성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학협력의 파트너나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간에는 특성화 정보를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하거나 재정지원의 특성화 분야로의 집중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가 촉진될 수 있고 개별대학은 타 대학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권역내 대학의 분야별 역량을 비교하여 대학의 특성화분야 선정기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특성화 지도에는 전국·지역단위에서의 대학의 특성화 추진전략, 추진성과 등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력, 교육력 정보가 제공되어 질 것이다. 전국단위에서는 인문·사회·이학·공학 등 학문분야·기능을 중심으로 대학이 선정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정보가, 지역단위에서는 지역별 전략산업분야와 연계된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정보는 대학별로 자체 구축한 특성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정보(안)】**

- 대학이 제출한 특성화 분야 및 기능
- 특성화 분야선정 과정 및 선정 근거
- 관련학과, 학내 자원 현황(교수, 학생정원, 연구비 등)
- 특성화 성과 : 연구실적, 취업률 · 진학률 · 총원률, 산학협력 실적 등
- 대외평가 : 정부/민간 재정지원 현황, 대교협 학문분야 평가, 공학교육인증여부 등 외부평가 실적 등

‘07년도 하반기에는 특성화 지도를 통해 제공할 정보를 중심으로 대학별 특성화 현황조사를 ‘06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실시하고 대학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특성화 지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08년부터(가칭)대학 특성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 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특성화 지도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특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외에 각 정부부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학별 특성화 지표 평가결과와 함께 권역내 대학의 교육력, 연구력 등 권역내 대학의 각종 역

량(competency)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역별 대학 역량지표와 관련된 자료도 제공하여 대학 특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3. 특성화는 진행형**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대학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특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을 토대로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연계하여 대학 특성화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며, 향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이를 적용해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시장의 힘에 의해 대학의 특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수요자가 특성화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화 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08년부터는 대학 스스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추진하되 정부의 일관적 특성화 정책에 방향을 맞추어 추진한다면 대학내 특성화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선정에서 성과가 나타날 때 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정부 등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며, 학교별 유형, 규모와 재정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타율적인 특성화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성화 평가지표 적용, 특성화 지도 구축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한 많은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국내 대학에서의 경쟁력이 아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가 육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배영찬 편집위원장 ycbae@hanyang.ac.kr